

시민 불편 제로화... 시내버스 암행감찰

전주시, 막차 무법질주·중도하차 개선 명령 무정차 원천 봉쇄... 적발 시 명단공개·행정처분

전주시가 막차 시간 때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지 않는 일부 시내버스에 대한 암행감찰을 통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막차운행 시 정해진 노선에 따라 종점까지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없다는 이유로 종점까지 운행하지 않거나,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승객에게 중도하차를 요구하는 등의 일부 외곽노선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시내버스의 경우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아닌 이상 정해진 시간과 노선에 따라 목적지까지 운행되어야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운전원들이 막차 시간 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노선 단축 운행, 승객들에게 중도하차 요구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30일 각 시내버스 회사에 관련 민원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막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향후에는 민원접수 이외에도 주요 노선을 대상으로 암행감찰을 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암행감찰에서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수종사자 명단을 공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이용과 관련한 불편민원 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

며 "접수 민원과 별도로 수시로 전산 시스템 점검을 통해 단속을 하고 이유 불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평소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 150여명으로 2018년도 상반기 전주시내버스 모니터링단을 구성, 직접 시내버스에 승차해 불편사항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친절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시에 제보하는 등 친절한 버스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송효철기자

범죄 없는 아파트 주거환경 만든다

전주시, 공동주택 방범활동·범죄예방 교육

전주시가 방범교육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31일 시청 강당에서 전주시지역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책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아파트 단지 내 강도·절도 등 범죄 예방 및 대응 방법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화재·가스·지진 등 발생 시 대처방법 △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시는 주거형태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 매년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 및 윤리교육,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교육 및 방범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송효철기자



"채소 모종을 심어볼까?" 지난 31일 전주시 완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생태친화형 유기농업 특별전시회장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한 채소 모종 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주시, 담배 없는 도시 만들기 '앞장'

보건소, 세계금연의 날 기념 금연홍보 나서 시민 대상 금연클리닉 통해 지속교육 실시

전주시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연기와 간접흡연 피해 없는 전주 만들기 위해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병호)는 31일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풍남문 광장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금연 홍보 캠페인 및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5월 31일로 정한 날이다.

보건소는 이날 거리를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니코틴 의존도 평가와 CO측정 등 체험코너로 꾸려

진 금연 홍보관을 운영하고 금연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자리에 서 등록과 상담이 가능한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했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금연 캠페인 외에도 보건소 내 상시 금연클리닉을 운영,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또,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홍보를 시행해 흡연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 힘 쓰고 있다.

/송효철기자

송천도서관, 문경수 탐험가 초청 특강

'탐험가가 발견한 일곱 가지 제주의 모습' 주제 강연

전주시립도서관이 5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평소 만나고 싶었던 작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은 지난 30일, tvn의 '어쩌다어른', JTBC의 '효리네 민박', 'EBS 세계테마기행' 등에 출연한 문경수 과학탐험가를 초청해 '도서관에서 만난 내 인생의 작가' 특강을 진행했다.

문경수 탐험가는 국내 유일 과학탐사여행 코디네이터로 과학을 주제로 한 탐험에 매료돼 서호주와 몽골 고비사막, 하와이 빅아일랜드, 알래스카 등 지질학적 명소들을 주로 탐사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NASA 우주생물학그룹과 함께

과학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강사는 이날 '탐험가가 발견한 일곱 가지 제주의 모습'을 주제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의 생성과정을 빅아일랜드 섬과의 공통점을 예로 들면서 제주의 자연자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강에 참여한 한 시민은 "그동안 카페나 식당투어 위주였던 제주여행이 이번 강의를 계기로 제주를 보는 새로운 눈을 발견하고, 자연자원 위주의 탐험을 떠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각 도서관별 자세한 행사 일정 및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와 해당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기자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덕진구, 하반기 다문화 외국문화전도사 사업 선정시 7월부터 10월까지 근무... 5일까지 신청

전주시 덕진구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문화 외국문화전도사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다문화 외국문화전도사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 올 하반기에는 결혼이주여성 17명을 선발, 이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덕진구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자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 교육 및 문화교류가 가능한 다문화가정 여성이다.

선발된 대상자는 희망하는 지역 아동센터에 우선 배치, 아동들에게 외국어 교육 및 외국어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가르친다.

외국문화전도사로 선정되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1일 3시간, 주5일(주15시간) 근무하며 월 급여는 60만원 정도이다.

덕진구는 대상자를 5월28일(월)부터 6월5일(화)까지 9일간 모집, 서류심사 후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상자에게 6월25일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김기영 덕진구청장은 "결혼이주여성분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안착, 지역이동들이 다문화 수용성을 갖춘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270-6344) 여성봉사팀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송효철기자

풍남정, 전주 향토음식업소 지정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시가 고유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해 전주비빔밥을 판매하는 업소를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추가 지정했다.

토전통음식업소로 인정을 받게 됐다.

시는 향후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지정서와 표지판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토전통음식업소 육성·발전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업소 홍보 등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최근 향토전통음식심의회를 열고 전주의 향토전통음식인 '전주비빔밥'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풍남정'을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향토전통음식업소 외에도 전주비빔밥과 돌솥밥, 한정식, 김치 등 각 분야별로 명인 7명과 명가 4곳, 명소 1곳을 지정하는 등 맛의 고장 전주에 걸맞은 음식문화 조성에 힘 쓰고 있다.

이로써 전주의 향토전통음식업소는 전주비빔밥 6개소와 콩나물국밥 7개소, 한정식 3개소, 돌솥밥 1개소로 모두 1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심사는 음식과 서비스, 위생시설 등 업소 운영 전반에 걸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나뉘어 진행, 추가 지정된 풍남정은 항목별 득점비율이 60%이상이고 각 심사자별 평균득점이 80점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적합해 향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향토전통음식업소 추가 지정은 전주가 보유한 소중한 음식문화를 보존하고 계승을 위하여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음식문화를 보존·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공공장 전선 상습 절도... 50대 입건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31일 야간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유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조촌동 한 원룸 건물 신축 현장에 서 전선 1500m(250만원 상당)를 훔치

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일을 하는 유씨는 건물 신축 현장에 전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틈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전선을 고물상에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